

# “서류 하나 내려 배 탔는데...이젠 우편함에 쓱~”

## 신안소방 ‘위험물정기점검표 회수서비스’

**NCR 감압식 전용 양식 제작·배포  
비대면 제출...시간·비용 절감 호응  
류도형 시장 “지역 위한 서비스 발굴”**

신안군 장산면에서 주유취급소를 운영하는 박모(55)씨는 최근 민원 업무가 훨씬 편리해졌다. 신안소방서가 시행 중인 ‘위험물 정기점검표 회수서비스 운영’ 덕분이다.

30일 신안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섬 지역 민원인의 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 우체통을 활용한 ‘비대면 정기점검표 제출 자체 특수시책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비대면 정기점검표 제출 자체 특수시책 서비스는 그동안 소방서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던 정기점검표를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제

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회수서비스를 통해 신안군 주민들은 소방서나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소방서에서 민원인에게 점검표를 우편 발송하면 민원인은 이를 작성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회송되는 우편 요금은 소방서에서 전액 부담한다.

민원인은 전남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 점검 매뉴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안소방서에서 발송한 우편봉투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점검 방법과 작성 요령을 쉽게 확인



신안소방서는 섬 지역 민원인의 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 최근 우체통을 활용한 ‘비대면 정기점검표 제출 자체 특수시책 서비스’를 운영, 군민들이 시간과 비용 절감에 호응하고 있다. <신안소방서 제공>

할 수 있다.

현재 신안군의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 89개소

중 57개소는 연륙돼 있지 않은 섬 지역이거나 차

량으로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원거리 지

역이다.

실제로 흑산면에서 신안소방서(신안군 암태면 단교리 소재)까지 이동해 서류를 제출하려면 배편과 차량을 이용해 왕복 약 7시간이 소요되며, 시간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크다.

군민 요금 기준 배삯은 왕복 2천원이지만, 차량을 배에 싣는 도선료와 유류비까지 포함하면 약 1만5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신안소방서는 민원인이 동일한 점검표를 원본과 부분으로 각각 작성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NCR 감압지를 활용한 전용 양식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 번의 기재로 원본은 소방서 제출용, 부분은 자체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류도형 신안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홍기자

## 목포해인여중,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에 후원금 전달

400만원 전달...학대피해아동 지원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는 “최근 목포해인여자중학교로부터 학대피해아동 및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후원금 전달식은 목포해인여자중학교에서 열렸으며, 임광목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장, 나운성 목포해인여자중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후원금은 목포해인여자중 기부미(寄府美, Give-me) 바자회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목포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및 위기가정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임광목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장은 “지역 사회 내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 준 목포해인여자중에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후



원금은 고마운 뜻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나운성 교장은 “목포해인여자중 학생들이 함께한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을 의미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해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공식 인증

4년간 아동 사업 추진·국제행사 교류 등

해남군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됐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청사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선포식은 해남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아동·청소년참여단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남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 사용권과 인증서·현판을 수여받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행사 교류와 협력 자격이 주어진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1일까지 4년간이다.

명현관 군수는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아동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2022년부터 조례 제정, 전담 부서 신설, 실태 조사,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남=박필용기자

## 함평 ‘물놀이 페스타’ 첫 선

함평군이 여름 축제인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올해 처음 선보인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축제관광재단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31일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과 연계해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올해 첫 개최한다.

‘함평 물놀이 페스타’는 군이 사계절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 봄(비대추축제), 가을(국향대

전), 겨울(함평 겨울빛축제)에 이어 기획한 최초의 여름 축제다.

축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토·일)과 광복절 등 휴일 1일, 공연 프로그램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성수기와 공휴일을 포함해 총 15일간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바이벌 물총대전 ▲불꽃대전 ▲징검다리 켈리지 등 이색적인 물놀이 체험 콘텐츠 ▲EDM 버블파티 ▲K-POP 댄스파티 등 공연 콘텐츠로 구성됐다. /함평=김연수기자

## ‘여름의 시작’ 무안연꽃축제, 10만 방문객 찾았다

회산 백련지 일원서 9만6천여명 기록

전시·체험 풍성...이달 물놀이장 개장

제2회 무안연꽃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8-29일 무안군 회산 백련지에서 제2회 무안연꽃축제가 열렸다.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이른 개최로 만개한 연꽃의 풍경을 담지 못했으나, 더욱 풍성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한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에는 9만6천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무안 대표 축제로의 위상을 드러냈다.

드넓은 회산 백련지를 가득 채운 싱그러운 초록빛 연잎은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여름밤 연빛달빛야행(夜行)’으로 고요하고 신비로운 백련지의 매력을 선사했다.

축제의 개막은 ‘연꽃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무안’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로 포문을 열었으며, 박지현, 예능, 최유나 등의 축하공연과 불꽃쇼가 이어지며 화려하게 장식했다.

태권V, 아이언맨, 뽀로로 등 20여종의 유등을 전시한 ‘유등 캐리커존’은 잔디광장을 수놓는 환상적인 포토존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고, 주말 동안 물놀이장에서 열린 ‘위터樂 페스티벌’<사진>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

려버리며 축제의 흥을 높였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은 목표로 마련된 ‘백련마실’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문화·체험·관매를 함께 즐기고, 지역 중심상권에서 소비로 이어지도록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향토골목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 어린이 독서골든벨 대회, 신비의 연잎길 보트 탐사, 연꽃 족욕, 소방안전체험, 연차시음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즐거움을 더했다.

젊은(SUMON) 콘서트, 대학가요제 리턴즈, 댄스 투나잇, 연꽃 예술한마당, 청춘마이크 등 풍성한 무대 공연도 펼쳐졌다. 마지막 날 열린 ‘태근 노래자랑’은 관객이 직접 참여해 함께 호흡하며 관광객과 군민이 하나 돼 즐기는 무대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이번 무안연꽃축제를 성공적



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뜻 깊다”며 “내년에도 더욱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가 끝난 이후 연꽃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하고 회산백련지 야외 물놀이장도 7월 중순 정식 개장에 한여름의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안=김상호기자

## 강진 영화관, 관람료 반값·‘2+1 이벤트’ 운영

5일 ‘영화 보는 날’ 행사

강진군은 30일 “오는 7월 5일 ‘영화 보는 날’ 할인 행사를 운영하고, 12월 21일 까지 매일 ‘2+1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화 보는 날’은 12월 21일 까지 매주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명절에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를 50% 할인하며, 팝콘·음료 세트

도 2천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당일 현장 예매 시에만 적용되며, 강진군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온라인 예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람을 원하는 군민은 반드시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강진=정영록기자

또한 강진군은 7월부터 ‘2+1 이벤트’를 통해 영화 관람 장려와 관객 참여 확대에도 나선다.

이 이벤트는 영화 2회 관람시, 무료 영화 관람권 또는 매점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인 1회만 적립 가능하며, 월 최대 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강진영화관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 영암 ‘달빛청춘마루’ 개관 1년, 소통의 장 자리매김

운영 시간 연장...창업 준비생 이용 ↑

영암군청년소통센터 ‘달빛청춘마루’가 개관 1주년을 맞아 청년 소통 교류의 장, 청년정책 실험대, 청년문화 구심점 등으로 청년친화도시 비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달빛청춘마루는 연면적 2천21㎡, 지상 3층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1층에는 청년센터가, 2-3층에는 신규 공직자 임대주택 ‘달빛그린빌’이 들어섰다.

1층 청년센터는 다목적 강의실, 미디어실, 공유주방, 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청년 누구나 무료로 자율·창의적 모임·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사진>

올해 2월부터는 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주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창업 준비생 등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연장 운영 이후 약 1천384명이 오후 시간대에 소모임, 프로젝트 회의, 자기계발 활동 등으로 센터를 찾으며 ‘퇴근 후 청년 공간’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달빛청춘마루는 개관 이후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참여 확대에 주력해왔다.

진로탐색 도우미, 마음건강상담소, 수요자 중심 클래스 등 청년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장과 자립을 돕고 있고, 청년 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해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센터 개관 1년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해 낸 변화의 시간이었다”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 청년이 선택하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기자